(주)동방생활산업 천안공장 신축공사를 마치고…

문재덕 | ㈜동방생활산업천안공장신축공사현장대리 | 011-9749-5770 | E-mail: mjd1225@ssyenc.co.kr

기공식준비를위해처음현장을방문했을때,“저기가현장이다”라고가리키는소장님의손끝엔논밭사이로덩그런‘야산’하나가놓여있을뿐이었다. 그러나지금은벌목을하고계곡을메워수려한경치를자랑, 기숙사동휴게실의전경은그야말로별장이부럽지않을정도다.

11개월의 공사기간

(주)동방생활산업 천안공장은 대지면적 19,72평, 연면적 4,72평으로공장동 · 원료창고동 · 공전동 · 기숙사 및 식당동 · 사무동 · 경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까지 약 11개월의 공사기간과 2만 5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한편, 이공장은원면을수입하여‘실 을뽑아내는방직공장으로써 30,000여추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0여명의종업원이24시간3교대로근무하게된다.

(주)동방생활산업은 아산에 기존공장이 있었으나 약 2년전‘화재 로 인해 대다수 기계들이 전소된 바, 이번에다시건축하게됐다. 이에발주한기계장비선적일에 맞춰 공장건립을 추진해야 하지만, 설계도서가 미처 완비되지 못한 관계로 당사 입찰시 구조도면은아예없었을뿐만아니라, 마감도면역시마감재가 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발주함으로써공사준공이임박할때까지‘평당단가 의개념이적용돼현장설계변경에가장큰복병으로자리잡았다.

추위와의 싸움, 설계와의 전쟁(?)

당초9월에 착공, 공사기간 8개월로 계약했지만 시작부터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의지연으로인해 12월달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건축의 주공정인골조공사가동절기에이르러착수하다보니겨울내내 추위와 씨름해야했고, 이들에 대한 보양작업은 완전히또 다른하나의공사그자체였다고해도과언이 아니다. 파이프로 거대한 하우스를 짓고, 열풍기 15대, 갈탄난로 20개, 석유난로 20개 등 온갖가용한 보양장비가총동원됐으며큰천막을치기위해수십명의인원이거의매일동원돼야만했다.

다행히 겨울동안 큰 폭설은 없었지만 어쩌다 눈이라도한번내리는날에는그여파가3일씩공기지연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 또 마감 및 구조도 등 설계도서가 확정된 후에는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제는 설계변경과의전쟁(?)이시작됐다.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절감을위해간부숙소를철거하고지붕물받이통을 없애 자연낙수로 처리했으며, 기능상 불필요한 습식공사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발주처, 감리, 시공사가머리를맞대고조금이라도비용절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도면변경작업을 벌인끝에 고품격의 건물보다는 기능위주의 실용적인 건물이탄생하게됐다.

한편 기공식 준비를 위해 공장부지 야산 가운데 산림이 적고잡초가 무성한 평지(?)를 골라제초작업을 하던중제초기에꿩한마리가목숨을잃은일이있었다. 제초기 소음도 제법 큰지라‘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고의구심을품던중, 죽은꿩자리를들춰보니 그곳에는그어미꿩이품던따끈따근한알이5개놓여 있었다. 이를 본 순간, 하찮게 생각하던 짐승 한마리의 모성애가 마치 순교자의 고귀한 죽음처럼 느껴지며인간들에게따끔한메시지를전해주는듯했다.

일인다역(一人多易)을 해준 직원들께 감사

이제 (주)동방생활산업 천안공장은 기계장비들이 반입돼 설치되고,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또 다시 수정작업을하고, 도로포장및조경을마치고, 기숙사동의 침구류까지 모두 반입된 끝에, 어느덧 시험가동 한기계에서는‘실 이생산되어나오고있다.

어렵게만 보이던 국토이용개발 계획변경이나 준공검사도이젠완료돼사용승인을받고나니어느덧1년여라는 시간이 흐로고 있었다. 공사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소규모현장이었지만바로전현장의일신방직을 포함하여 최근의 방직공장 신축을 연이어 성공리에 완성하였다는것이조금이나마쌍용건설의실적에보탬이됐으면한다.

끝으로적은인원으로나마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 일인다역(一人多易)을 해가며최선을 다해준 모든 직원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